



◇ '당실' '당실', 신명나는 흥판이 한바탕 펼쳐지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사진은 하회탈춤 시연 장면.

축제열기 전국 '후끈'

들뜬에 황금 물결이 넘실대는 10월은 본격적인 가을 축제의 달.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름만 들어도 흥미롭고 다양한 지역 축제가 열린다. '고인돌 축제', '지평선 축제', '무술축제' 등 흥겨운 진치 속으로 훌쩍 떠나기 보자. 단순한 구경꾼에 머물지 말고 축제의 주인이 되어보자.

다채로운 가을맞이 지역문화제

녹아 있는 안동에서 제 6회 국제탈춤페스티벌이 6일까지 열린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너와 나의 탈춤, 우리들의 미소'. 낙동강변 축제장, 하회마을 등 안동 시내 일원에서 펼쳐지며 다양한 탈춤 공연과 민속 축제, 음식 축제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이탈리아 베니스 가면극 공연단이 공연을 할 계획이어서 미리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과 중

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고인돌 공장은 5일 오후 2~4시, 6일 오전 11시, 오후 4시에 고인돌 세우기를 재현한다. 또 원시마을 재현, 돌탑 쌓기, 토기 만들기 등의 체험 행사도 계속 펼쳐진다. 관광객에게는 강화 청정 협할 한 봉지 5백송을 무료로 선물한다. 한편 5일에는 강화도병이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한양길에 오르는 모습을 되살린 혈통 임



◇ 사찰이 하나의 거대한 석불박물관인 운주사에서 열리는 '운주대축제'에서 참가자들이 만든 점토 천불·천탑.

◆ 화순 운주대축제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리는 운주대 축제는 화순 최대 이벤트. 운주대축제는 전통법패 의식, 점토 천불·천탑만들기, 큰별자리와 석탑배치도·석불 제작, 만동불사, 발우공양 시연 등 다양한 불교문화 체험을 볼 수 있다. 신라말 도선 국사가 창건한 고찰 운주사는 여느 사찰과는 달리 독특한 석탑과 석불이 경내에 흩어져 있는 거대한 석불박물관. 풍수지리에 의하면 이곳 지형이 백영국이어서 뜻대와 사공을 상징하는 천불과 천탑을 세웠다고 한다. 경내에 들어서면 석불과 석탑이 흩어져 있다.
행사기간 동안 국악단 초청공연, 연날리기, 사투리대회, 토속민요경연대회, 제기차기, 윷놀이, 풍물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향토음식전시회에서는 푸짐한 전라도 음식도 맛볼 수 있다. 화순군청 061374-0001

운주 대축제 점토천불·천탑·만동·석불제작

원효 예술제 풍물·판소리·시낭송·탈들이

◆ 분황사 원효예술제
원효학연구회와 분황사가 공동으로 원효스님의 가르침을 기리기 위해 마련한 문화축제가 9일 분황사에서 열린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분황사 원효예술제는 풍물놀이, 시낭송, 판소리, 무용공연 등이 열린다. 또 국보 제 30호인 모전석탑을 도는 탈들이 행사도 진행된다. 분황사 054742-9922

◆ 안동 국제 탈춤페스티벌
조상들의 풍류와 전통 문화가 그대로

안동국제탈춤 탈춤·음식·민속·伊 베니스 가면극

고인돌 축제 고인돌·돌탑쌓기·토기만들기 진행

금 등극 행렬도 보여준다. 강화군청 문화청소년과 032930-3621

◆ 충주 세계무술축제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된 태권도의 본고장 충주에서 3일까지 세계무술축제가 열린다. 이 행사는 세계에서 유일한 무술을 주제로 한 축제. '오천년 민족혼과 세계무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31개국에서 50개가 넘는 무술단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무술을 선보이는 인원만 해도 700여명. 충주체육관 광장에 설치된 메인 무대를 비

롯해 차 없는 거리와 풍물시장, 수안보온천 등 충주시 일원에서 성대하게 펼쳐진다. 또한 이번 축제기간에는 세계의 신기한 무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그 중 중국무술의 진수인 소림무술과 우수를 비롯해 일본의 가라데와 거합도, 태국의 무에타이, 브라질의 까보엘라 등 세계 유명무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충주무술축제 추진위원회 043850-5171

◆ 통영 나전칠기축제
4백년 역사를 자랑하는 통영의 나전칠기문화를 알리는 축제이다. 올해로 네 번

째, 3일까지 도남관광지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공방 안에서 만들어지는 나전칠기의 제작과정을 일반에게 공개 전시한다. 보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하여 나전칠기를 만들어볼 수 있다. 또한, 중요무형문화재로부터 '승전무' 동작 배우기 및 공연, 고성오광대 탈 그리기, 대풍어제 등을 준비한다. 통영시청 문화관광과 055640-5101

◆ 김제 지평선 축제
드넓은 평야를 배경으로 한 농경 문화 체험 축제다. 3-6일 나들간 벽골제 일원에서 열린다. 허수아비 만들기, 메뚜기잡기, 황금벌판 우마차 여행, 연 날리기 등의 농경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한다. 이외에 벼 베기, 새끼 꼬기, 가마니 짜기, 팥종이 낚시, 조개 캐기 등의 체험 행사도 준비돼 있다. 김제시청 지평선축제팀 063540-3324



◇ 동봉스님의 '여락수중현'

수재민들기 서화전 열어
동봉스님, 대구 우봉미술관
10여년동안 선사화를 그려온 동봉 스님. 일봉선교총 총무원장이 '수재민들기 선

서화전'을 6일까지 대구 우봉미술 전시관에서 연다. 이번 전시에는 '관세음보살도'를 비롯해 '달마도', '구룡도', '나한도', '신선도' 등 불화 20여점과 사군자 30여점, <금강경> <반야심경> 사경 작품 50여점 등 1백여점이 벽에 걸린다. 특히 물속에 있는 부처님 공경을 표현한 '여락수중현'에서는 관세음보살 주변 물고기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한달동안 정진 하면서 완성한 3폭의 <반야심경> 사경에서는 부처를 향한 수행자의 여전한 기운이 전해진다. 053622-6280

가볼만한 전시회 3곳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는 유약인 '진사(眞砂)'는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지만 발색(發色)이 어려워 도예가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12일까지 서울 시간동 불일 홍재표 고희기념 도예전 12일까지 불일미술관서

미술관에서 열리는 '홍재표 고희기념 도예전'은 '진사'의 매력에 흠뻑 취할 수 있는 흔치않은 기회다. 하얀 백자위에 입혀져 있는 자줏빛 색깔의 진사를 보고 싶다면 부드럽고 자연스런 선에 의해 화려하게 채색된 한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착각



◇ 홍재표 작가의 '진사도자기'.

에 빠져든다. 이번 전시회는 진사 50여점을 비롯해 백자, 분청 등 총 70여점이 선보인다. 02733-5322

수안 스님의 선사화 '우담바라' '참 좋은 인연입니다'. 웅산 스님의 '달마도', 탁케한 결례 중풍 스님의 그림, 원성 스님의 '동승', 연꽃 그림으로 유명한 수증 스님 등 국내 유명 스님 작가 30여명의 그림과 판화, 경봉, 송산 스님과 같은 선지식들의 글

한미불교문화원 설립 기금모금 선서화전

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부산(5-12일) 국제신문사 전시실, 광주(26-30일) 남도예술회관에서 열리는 한미불교문화원 기금 모금전이 그것이다. 이번 전시회에 선보여지는 4백여점의 작품들이 한 곳에 모이기까지는 한미불교문화원 설립추진위원회 김형근 집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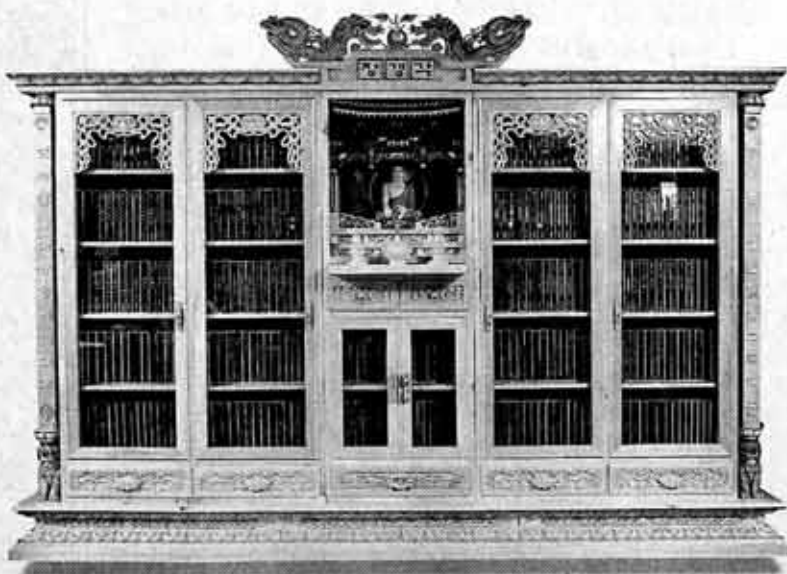
◇ 수안스님의 '우담바라'.

원장(46)이 국내 사찰은 물론 뉴욕과 서울을 오가며 들린 발품이 큰 몫을 차지했다. 이번 전시회가 단순한 기금 마련 차원을 넘어 승속의 예술세계를 두루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016350-9199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대장경을 읽으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한글대장경」 및 봉안 전용 장경각(주문 제작 보금)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37-8881, 02-722-4162 팩스: 02-737-0697

사찰에 봉안하면 聖寶
가정에 봉안하면 家寶
읽고 마음 밝히면 法寶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입니다.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 상과 탱화가 화려한 단청과 불단으로 장엄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장엄미: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찬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7개의 서랍과 이동식 공양을 받침대, 연화문 옹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부다피카드로 봉인불사를..

현대불교신문사와 외원은행의 제휴카드인 부다피카 외원비자카드 신청 실적으로 사찰에 한글대장경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사찰신도가 부다피카외원비자카드에 500명이 가입하면 한글대장경1집(4백77만원)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 장경각은 사찰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두가지가 있습니다.